민족문화연구 제96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6호에는 특집논문 4편과 일반논문 14편, 해외한국학 자료 소개 1편이 수록되었다. 특집논문의 주제는 "『금석집첩』의 종합적 연구 1"로 이에 대해서는 특집의 말을 참고하길 바란다. 여기서는 수록 순서에 따라 일반논문에 대해서만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박용진은 진정국사의 『호산록』과 『사명존자교행록』의 「延慶寺歷代住持」 등을 토대로 고려의 진정국사와 송나라 延慶寺의 교류를 살피면서 고려후기 백련사와 송 천태종의 교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백련사와의 첫 교류기록인 의천의 연경사 방문 기록으로부터 고려와 송나라 불교계 교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핀 후, 진정국사와 연경사 제31대 주지 법언과의 교류 내용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밝히고 교류의 시대적 맥락을 추론하고 있다.

강재광은 고려 고종시기 백현원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의 대몽항쟁과 그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다.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 한계산성 전투, 천곡촌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그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김윤후의 청렴결백한 성품 및 용병술, 군사전략가로서의 면모와 민생 회복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그 리더십의 핵심 내용으로 요약 소개하고 있다.

정하정은 그동안 도학가로서만 조명되었던 남포 김만영의 산문 문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학자이면서도 농부로 자처하여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서사 산문 및 '自足'과 '求道'와 같은 진지한 주제를 경쾌한 필치로 풀어낸 희작적 성격의 작품, 그리고 매화를 의인화한 假傳과 마음을 의인화한 檄文 등의 擬人體 산문 등을 통해 김만영의 다채로운 산문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장진엽은 성대중의 『靑城雜記』 「醒言」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여성 담론을 고찰하고 있다. 『청성잡기』의 여성 형상을 烈女·義俠·忠節의 형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세 유형의 여성 형상이 모두 능동성과 실천성을 갖춘 윤리 수행 주체로서 여성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성대중이 여성의 일방적인 순종보다는 남성 측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 윤리의 작동 방식에

현실적인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천은 조선 말기에 등장한 동학과 일제 강점기에 강증산으로부터 비롯된 증산도의 신선사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동학과 증산도의 세부적 차이점을 밝히면서도 양자 모두 호흡이나 명상을 중심으로 한 修鍊보다는 呪誦을 통해 신과 소통하는 '通神'을 추구한 점, 복록의 성취를 위한 조화의 도술 혹은 법술을 통한 혁세적 세계관을 구현하여 동아시아 신선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점을 그 공통적 의의로 밝히고 있다.

김미영은 『조선유교연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지연 유학사상의 특징적 면모를 검토하고 있다.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에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을 공부론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으며, 경세제민을 제창한 경제학파 유학자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도통을 이을 인격자에 주목하여 유학 본연의 공부론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이는 도를 이어나갈 인간에 주목하며 조선 유학사를 정리한 것이다.

김순석은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분석을 토대로 한용운의 독립운동이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한용운은 국권 상실기에 불교적 구도를 위한 세계 여행 과정에서 서구 문명의 자유와 평화 사상을 접했고, 이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를 집필했다. 한용운은 이를 통해 비단 우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됨을 역설하고 있다.

김남석은 1910년대 부산에 설립되어 1970년대까지 극장으로 운영되었던 보래관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하고 있다. 보래관은 국제영화극장, 문화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광복 이후에는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했고, 6.25전쟁 이후에는 정부 부서로 사용되다가 부산 지역민들의 반환 운동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글은 보래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통해 부산 극장가의 탄생 및 성장, 쇠퇴와 해산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오미일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1960-1970년대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조명하고 있다. 인천지역 공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로

■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00-000.
http://doi.org/10.17948/kcs.2022..96.000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성신용협동조합,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 산우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장 노동자들의 신용협동조합 설립이 노동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태우는 의정부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변화 및 그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실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두 지역은 1953년 이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평범한 농촌 마을이 기지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미군기지가 폐쇄되면서 마을 경제가 급격하게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부녀회·청년회·상인회 등을 조직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재생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벌였던 마을 주민들 및 상인들의 공동체적 실천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김진규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의 굴절 및 변형 양상을 밝히고 있다. 『침묵』은 개신교 출판사인 홍성사와 가톨릭 출판사인 바오로딸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수용되었는데, 이 두 본은 동일한 종교 배경을 지닌 독자에게 친숙한 어휘로 원작을 번역하거나 필요에 따라 원작에 나타난 중심인물의 종교에 대한 의심과 번민을 누락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역본은 이처럼 한국 종교인들에게 익숙한 내러티브로 원작의 표현과 내용을 굴절시킴으로써 원작의 표현을 변형, 훼손하거나 실존적 신앙 갈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주영은 힙합 가수 윤미래의 음악과 뮤직비디오 앨범 표지 분석을 통해 문화의 '정통성'(authenticity)과 '혼종성'(hybridity)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윤미래의 음악, 시각적 묘사 및 표출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하면서 인종 및 국가정체성을 통해 힙합의 '정통성'을 파악하려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윤미래의 음악을 사례로 삼아 국가·인종·문화의 '혼종성'을 통해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효정은 북한의 『조선말대사전』과 남한의 『우리말샘』을 비교 검토하여 북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조선말

대사전』의 경제 분야 올림말 2,182개를 『우리말샘』 어휘와 비교하고, 경제 체제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경제학 범위와 분류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에 경제 용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근용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그 의의를 한국 사상의 성격과 연관시켜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빠른 정보 소통을 통해 K-방역이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두려움을 넘어설 정신적 면역력과 종합적 사고에 도움이 될 정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 속에서 필자는 코로나 시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해 '통'의 가치로서의 공감과 연대, '중'의 가치로서의 의식의 각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국적 회통 사상과 윤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규필은 이번호 해외한국학자료로 일본 동양문고 소장 친필 유일본인 김매순의 『篆餘日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803년(28세)부터 1837년(62세))까지 35년간의 관직 생활을 김매순이 자신의 친필로 기록한 책으로, 부임한 관직의 순서에 따라 모두 7개의 日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강화 유수시절 휘하 관리들의 고과를 평한 것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공무 외의 소소한 일상 및 견문과 관리들과의 대화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김매순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관직을 맡은 시기 동안 그의 행적 및 교류 관계, 여행 및 이동 경로와 더불어 관련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정확히 고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번 호 『민족문화연구』에도 고전과 현대 시기를 망라한 문학·역사·철학 분야의 논문은 물론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다양한 논문이 수록되었다. 본 편집위원회는 고전과 현대를 기존의 문법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연구자들의 시도를 응원하며,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